



이배 개인전에서 선보이는 'Issu du feu'(왼쪽)와 'landscape'.

조현화랑 제공

## ‘숯의 화가’ 이배와 6년 만의 재회

18일 ~ 내년 1월 8일  
부산 조현화랑서 개인전

‘숯’이라는 재료와 흑백의 서체적 추상을 통해 한국 회화를 국제무대에 선보여온 작가 이배의 개인전이 부산에서 열린다.

조현화랑은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이배의 개인전을 1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개최한다. 부산 전시는 2010년 갤러리604에서 개인전을 가진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전시에는 숯을 재료로 한 2000년대 초기 회화 중 대표작 13점과 신작

3점 등 모두 16점이 출품된다. 특히 캔버스에 숯이 그대로 드러나는 ‘Issu du feu’ 시리즈와 기하학적 모티브가 두드러지는 ‘landscape’를 선보인다. ‘Issu du feu’는 프랑스어로 ‘불(火)에서 태어난’의 의미이다.

이배는 1990년 프랑스에 건너간 후 서양 미술재료 대신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재료인 숯을 작품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캔버스 위에 물감을 쏟아붓는다’고 할 만큼 층층이 유화물감을 축적하는 형태로 작업했지만, 재정난에 재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값싼’ 숯을 새로운 작업 재료로 활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숯은 상징적 의미가 강할 뿐 아니라 한국의 고유문화를 재발견하게 하는 재료이다. 이배의 작업에서 숯은 일차적 질료 외에 검정이라는 동양적 감성을 이차적 질료로 아우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시작 중 ‘Issu du feu’ 시리즈는 절단한 숯 조각을 나란히 놓아 접합한 후 표면을 연마하는 방식을 사용해 만든 작품. 수백 개 숯의 단면이 화면을 가득 메워 각각 다른 빛을 표현하는데 다양한 방향의 각도들이 만들어내는 빛은 은근하고 수줍다.

또 숯가루를 짓이긴 후 접착제를 사용해 두껍게 붙인 ‘landscape’는 숯의 본질이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이배 개인전=내년 1월 8일까지 조현화랑. 051-747 8853.

박진홍 선임기자 jhp@